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홍정표*, 양해솔**

원주 한라대학교 레저관광경영학과*,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determinants of university students

Jeong-Pyo Hong*, Hae-Sool Yang**

Dept. of Leisure & Tourism Administration, Halla University*

Dept. of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요약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창업의지를 살펴보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았다. 창업의지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는 개인역량이, 경력지향에서는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이 각각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났다.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창업정책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통제변수의 하나로 살펴본 창업교육 유무에서는 창업교육을 받았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수 변인의 유의성에도 불구하고 창업의지에 가장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사업지향성이다. 따라서 대학생들 스스로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이와 관련된 설계 및 자기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창업, 창업의지, 대학생 창업, 취업, 경력지향성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by empirical study on them and studied the various variables, which have impact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 of examination on the impact factors of each independent variable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as following.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 with individual ability in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with safety orientation, autonomy orientation, technology orientation and business orientation in career orientation.

The examination result on the impact of entrepreneurial environmen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was as following.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individual network and entrepreneurial policy. It was also possible to find that a student, who received entrepreneurial education as one of control variables, has higher entrepreneurial intention than a student who did not receive entrepreneurial education.

Especially, business orientation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multiple significant variables.

Therefore, diverse entrepreneurial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supplied so that university students can create business idea of own and reinforce the design ability related to the business.

Key Words :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university student entrepreneurship, employment, career orientation

Received 19 August 2014, Revised 30 September 2014

Accepted 20 Nov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Yang-Hae Sool

(professor,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Email: hsyang@hoseo.edu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최근 대학생 및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14년 6월 1일자로 집계된 전국 대학의 평균 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 대학 평균 취업률은 58.6%이며, 이 가운데 전문대학은 평균 61.4%, 4년제 대학은 54.8%에 그칠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과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최근에는 청년 취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로 대학생과 청년창업이 강조되고 있다. 장기적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정으로 더 이상 취업만으로는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창업 활성화 노력은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이나 창업지원을 위한 각종 민간 조직뿐만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적 차원에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3년 9월 5일 박근혜 정부는 대학생들의 창업환경 구축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청,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참여하는 대학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후 최근까지도 지속적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결국 취업난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청년창업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런데, 청년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 창업 지원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생들이 머리모만 생각하고 있던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이 부재하고, 관련 법·제도적 환경조성이 미흡하며, 추진내용 역시 부실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제도가 실수요자인 대학생들의 의견과 그 요구 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각종 정책들이 대학생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체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1].

또한 대학생들의 창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창업의지가 중요한데,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그리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가 아래의 선행연구 외에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

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창업의지의 결정요인을 추출한 후 다수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그들의 창업의지(entrepreneurial intention)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함으로써 나아가 창업의지가 실제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만 그들의 욕구를 파악할 수 있고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론적 배경

2.1 창업과 대학생 창업의 의의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창업(Entrepreneurship)의 개념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하는 것이며,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업종, 새로운 사업체를 선택하여 신규 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창업의 개념은 관련 연구자에 의해 매우 다양하게 정의된다. 정민주(2011)는 새로운 기업을 창조하는 일을 창업의 개념으로[9], 이신모(2005)와 전타식(2010) 등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 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정의하였다[6, 7]. 윤주석과 조주희(2008)는 미래의 목적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2], 박춘엽(2004)은 특정한 개인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 또는 시스템을 설립하는 것으로 논하였다[3].

남춘애(2012)는 보다 구체적으로 한 개인이 지금까지 해 오던 일이나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새로운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4], 황정희(2013)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라고 하였다[5].

국외의 경우, Dollinger(2002)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자원의 수집, 이윤추구의 기회를 추구하는 경제적 조직체의 설립을 창업이라 하였다[20]. 그리고 Timmons와 Spinelli(2006)는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 내기 위한 인간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10], Michael(2009)는 전통적 관점에서 볼 때 창업이란 새로운 생산품을 창조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작

업이라 논하였다[11].

또한 Cristina와 Diana(2013)는 이미 존재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저비용의 새로운 생산품이나 서비스로 발전시켜 결과를 산출하는 활동이라 지칭하였으며[12], Teemu(2013)는 창업이 국가경제나 정부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경쟁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요소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적 수준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활동으로 설명하였다[13].

따라서 이러한 견해를 종합해 보면, 결국 창업이란 새로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이나 업종을 선택하여 사업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창조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청년창업 또는 대학생 창업이란 아직 명확히 규정된 개념이라 보기는 어렵다. 먼저, 청년 창업의 경우 청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련 법률마다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문적, 이론적 개념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주로 추진하는 청년창업 정책이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8] 청년창업이란 주로 대학생을 비롯한 20대~30대 연령 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창업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대학생 창업의 의미는 청년 창업에 해당하는 20대~30대 계층의 연령대 중에서도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 또는 대학교 졸업을 목전에 둔 재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창업활동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2.2 창업의지 결정요인

창업의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즉, 한 개인이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실행하기 위한 변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살펴보면, 먼저 Ferreira 등(2012)에 의하면, 창업의지 결정요인은 통제에 대한 내적 인식(internal locus of control), 위험에 대한 인식 또는 위험 감수성(propensity to take risk), 자기 신뢰(self-confidence), 성취욕구(need for achievement),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tolerance of ambiguity), 혁신성(innovativeness) 등이 제시된다[19].

또한 Krueger(2000)는 업무에 대한 통제와 불확실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창업에 대한 의지가 달라진다고 하였으며[14], Brice(2004), Li(2006), Hmieleski

와 Corbett(2006), Kennedy 등(2003)의 연구에서는 목표에 대한 성취욕구, 업무 통제에 대한 인식, 불확실성에 대한 수용태도와 위험에 대한 인식 등을 창업의지 영향요인으로 제시하였다[15, 16, 17, 18].

국내의 논의를 살펴보면, 먼저 김종운(2014)은 개인의 특성과 경험,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능력, 사회적 평가 등 소위 계획행동이론(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에서 논하는 3대 요소를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 평가하였으며[21], 유연호(2008)는 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 요인을 창업의지 영향요인으로 제시하면서 경력지향성에는 안전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을 하위 변수로 구성하였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사회적 위상과 사업가치관, 기업이미지와 네트워크 환경, 대학의 창업문화를 제시한 바 있다.

서정훈(2013)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인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 그리고 혁신성과 개인역량을 제시하였으며, 경력지향성의 측면에서 안전지향성과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을, 그리고 환경특성에서는 창업멘토, 개인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을 주요 변수로 제시하였다[24].

이 밖에 김성순(2010)은 기업가정신, 성취욕구, 창업동기를[22], 박은주는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학업적응, 창의력을[23], 박옥열(2012)은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등을 개인적 요인으로, 창업멘토와 개인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을 환경요인으로 설정하여 이 두 가지를 창업의지 결정요인으로 제시하였다[25].

이와 같은 국내외의 견해를 종합하면,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는 창업을 인식하는 개인적 특성과 경력지향성, 사회 환경적 특성이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 특성에는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 등이 하위 변수로 구성되며, 경력지향성에는 안전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 환경적 특성으로는 창업멘토와 창업 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인식과 창업정책이 주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위의 논의들에서 제시한 창업의지 결정요인에서는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주요 변수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성별, 연령,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역시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술한 개인적 특성과 경력지향성, 사회 환경적 요인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창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시키지 못한다면 이 역시 창업을 할 수 없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 특성, 경력지향성, 사회 환경적 요인이 갖추어지더라도 개인이나 가족의 경제적 여건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할 경우 이 역시 창업을 할 수 없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요인 외에 인구통계학적 특성 역시 주요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연구에서는 이하의 연구과정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네 가지의 변수들에 대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고자 한다.

2.3 선행연구의 검토

이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의 창업의지 및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와 일반적인 창업의지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 등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2.3.1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 연구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중 이 연구와 유사한 변수를 사용, 측정한 연구는 서정훈(2013)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으로 구성된 개인적 특성이 모두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경력지향성 중에는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 자율지향성 등이, 창업 환경요인에서는 창업멘토, 개인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 등의 모든 하위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기일(2010)의 연구에서는 경력지향성, 자기효능감과 창업네트워크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사회 환경적 요인인 기업가와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만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35].

유연호(2009)의 연구에서는 경력지향성 중에서 사업지향성과 기술지향성이, 사회문화적 요인 중에서는 기업 이미지와 네트워크 환경, 대학의 창업문화, 창업지원프로

그램 참여의사 중에서는 창업 강좌와 창업자문단, 창업한 졸업생 네트워크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7].

그리고 최명길(2012)은 자기효능감, 창의력, 창업에 대하여 인지된 욕구와 적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36], 박옥열(2012)은 개인적 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과 창업환경요인(창업 멘토, 개인네트워크,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을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과를 도출 하였다[25].

그 밖에 이 연구와 다른 변수를 사용한 연구들로 김종운(2014)은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업에 대한 태도와 기업가적 자질이 창업의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에 관심을 가지는 대학생들 중 창업실행의 시기를 재학 중이나 직장생활 이후로 설정하는 학생들보다는 졸업 직후로 잡는 이들의 창업의지가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21]. 유경태(2012)는 성취욕구와 자기효능감, 개인특성, 자율성향, 창업 네트워크, 창업교육 등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26].

또한 이우진(2013)은 대학생들의 자아실현과 혁신성, 롤모델 추구하고 관련된 직업선택의 동기 요인들이 창업에 대한 자아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으며[27], 김혜선(2010)은 MBTI 성격유형과 창업의지와와의 관계 규명을 위한 모형설계를 통해 성격유형 중 외향-내향 성격유형이 창업에 대한 관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외향적인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이 내향적인 성격유형을 가진 학생에 비해 창업에 대한 의지와 관심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였다[28].

김영문(2014)의 연구에서는 심리적 성장환경 중 성취감과 상호역할기대, 창업교육이 창업교육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29], 김 홍(2012) 역시 김영문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창업의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의지, 창업한 친구를 부러워하는 성향, 창업 관련 업무를 배워보고자 하는 의지가 창업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30].

정두식(2012)은 주로 개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창업교육 횟수와 창업 교육 경험 여부가 가장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성별, 월평균 소득, 아르바이트

경험, 전공 역시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31].

이 외에 최명길과 박은주(2012)의 연구와 오영미(2013), 이우진 등(2013)의 연구에서는 창업 및 기업가정신 교육을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32, 33, 34].

국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 교육에 많은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먼저, Duygu & Selcuk(2009)는 창업의지 또는 사업가 정신과 관련된 대학의 적절한 교육과 가족 및 친구 등 구조상의 지지 요인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46].

Fayolle(2005)와 Kickul 등(2008)의 연구, Bagraim 등(2008)의 연구 역시 학생의 자기 유효성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주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창업교육을 중요한 창업의지 향상 도구라고 평가 하였다.[48, 49, 53].

반면에, Hamidi 등(2008)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혁신성(innovativeness)이라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창업 정신 또는 기업이 정신을 가진 이들이 보다 창조적 기질이 강하며,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학의 사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더욱 높은 창업의지를 갖는다고 하였다[50].

또한 Raposo 등(2008)과 Florin 등(2007)의 연구에서도 대학의 창업 교육 시스템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유의미하게 미치고, 창업역량을 개발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51, 52].

2.3.2 일반적 창업의지 결정요인 연구

대학생 외의 일반인들의 전반적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오상훈과 하규수(2013)는 객관적 창업환경과 잠재 창업가의 자신감 혹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으로 정의되는 주관적 환경인식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객관적 창업환경 및 주관적 환경인식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사업실패부담감이 매개변수 역할을 하며, 객관적 창업환경의 설명변수로 채택한 보육제도 여건 역시 창업의지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38].

유봉호(2014)는 셀프리더십과 창업효능감 및 내재적 동기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39], 정용희(2012)는 창업자의 개인적 특성요인 중에서 성취욕구와 위험감수성이, 경력요인에서는 사업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논하였다[40].

윤방섭(2004)은 창업의지 결정 요인을 개인특성 요인과 환경 특성요인으로 논의하였는데, 개인특성 요인은 개인의 경력지향성과 자기유능성을, 환경요인으로는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요인과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사회적 환경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개인특성 요인인 경력지향성과 자기유능성은 대체적으로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는데, 경력지향성 중에서는 사업지향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에 안정지향성과 자율지향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또한 환경요인 중 개인의 네트워크 환경은 창업의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에 사회적 환경요인인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한다[41].

이 밖에 유연호와 양동우(2008)는 경력지향성 중에서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만, 안정지향성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며[42], 정민주와 장대성(2012)은 자기감성 관리 능력과 타인감성 관리능력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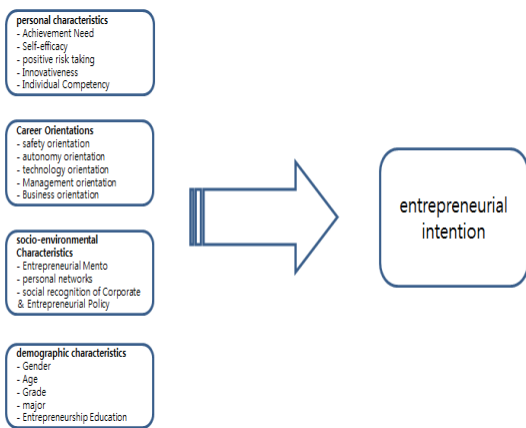
한편, 창업 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김명숙 등(2013)은 시니어 창업 역량 교육프로그램과 창업교육내용 및 창업교육환경이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44], 하규수와 서란숙(2009)은 전공, 창업교육 경험 횟수, 창업교육 도움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냈다고 논의하였다[45].

국외의 경우 Ferreira 등(2012)은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성취욕구, 자기 신뢰, 통제에 대한 인식 등 개인적 태도를 제시하였으며[19], Lo와 Wang(2007)의 연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가능성과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하였다[47].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이 연구는 서울, 경기, 강원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경력지향성, 사회 환경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창업의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주요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 분석의 틀

청년실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창업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갖게 하는 요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 역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그들이 흔히 ‘스펙’이라고 하는 전문성과도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인식하는 창업에 대한 의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의지들이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요인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 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개념과 정의를 통해 이 연구의 주요 독립변인(개인적 특성, 경력 지향성, 사회 환경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종속변인(창업의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하위요인으로 개인적 특성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으로 구분하고, 경력지향성은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회 환경적 특성은 창업멘토, 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으로 구분하고, 인구통계학적특성은 성별, 연령, 학년, 전공, 창업교육을 포함하였다.

이와 같은 요인으로 구성된 설문은 총 500부 제작되어 2014년 7월~8월까지 약 한 달 간 현재 서울·경기·강원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배포되어 자기기업식 설문방식을 통해 작성,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는 무응답과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자료를 제외한 총 456명(91.2%)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변인과 주요 가설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ain variables and hypothesis

factor Classification	variables	entrepreneurial intention
personal characteristics	Achievement Need	+
	Self-efficacy	+
	positive risk taking	+
	Innovativeness	+
	Individual Competency	+
Career Orientations	safety orientation	+
	autonomy orientation	+
	technology orientation	+
	management orientation	+
	businessorientation	+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Mento	+
	network	+
	social recognition of Corporate & Entrepreneurial Policy	+
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
	age	+
	grade	+
	Entrepreneurship Education	+

3.3 분석방법 및 연구변인

3.3.1 분석방법

이 연구는 2014년 현재 서울·경기·강원지역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대한 인식태도를 살펴보고, 그들이 가지는 개인적 특성과 경력지향성,

사회 환경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창업지원에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각 특성에 따른 주요 요인을 설문 문항으로 구성하고 각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창업의지)에 대한 독립변인(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 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 창업멘토, 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인식, 창업정책)의 구체적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최종적인 분석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조사에 이용된 설문에 대한 주요개념의 단일 차원성과 신뢰성(reliability)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Cronbach' alpha값을 이용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란 한 조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안정적으로 일관되게 조사되었는가를 판가름 하는 것과 관련된 정확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뢰도는 가설검증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뢰성이란 측정결과에 오차가 들어있지 않은 정도, 즉 분산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반영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측정치의 점수에 오차가 포함되어 있는 정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 측정치는 신뢰할 수 있다. 신뢰성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측정도구로서 동일한 대상을 측정하였을 때 측정치에 포함되어 있는 일관성 없는 변동오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산출된 신뢰계수의 기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Cronbach' alpha 계수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높을수록 바람직하나 반드시 몇 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흔히 0.8~0.9 이상면 바람직하고 0.6~0.7이면 수용할 만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0.6보다 작으면 내적 일관성을 결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알파계수의 크기를 저해하는 항목을 제거함으로써 계수 값을 크게 할 수 있다. 대부분의 Alpha값이 0.6이상일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의하여 나타날 때 그 관계를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이다. 이 분석방법은 먼저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당한 수학적 모형을 이론적 근거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설정하고, 변수들의 관측된 값을 이용하여 그 모형을 추정한 다음, 추정된 모형에 의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든지 또는 예측 등의 분석에 응용하게 된다[54].

3.3.2 연구변인

가. 종속변인

이 연구의 종속변인은 대학생의 창업의지를 “나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편이다.”, “나는 나의 장래를 위해 취업 보다 창업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스스로 업체를 창업하거나 인수하여 경영하는 것을 선호한다.”, “나는 업체를 하나 이상 소유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질문에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 등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4가지 문항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Table 2〉 dependen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	question	factor loadings Values	Cronbach's
entrepreneurial intention	I have strong will to start a business.	.813	.877
	I prefer starting own business to getting a job for my future.	.874	
	I prefer to start own business or take over a existing company.	.902	
	I am willing to possess or manage more than one company.	.833	

나. 독립변인

이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는 개인적특성(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성, 혁신성, 개인역량), 경력지향성(안정지향성, 자율지향성, 기술지향성, 관리지향성, 사업지향성), 사회환경적 특성(창업멘토, 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인식, 창업정책),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창업교육)으로 구성되었다.

1) 이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전공은 독립변인에 포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공은 명목척도로 구성되어 회귀분석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독립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대부분의 요인이 연구모형이 제시한 개념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개인적 특성의 하위 요인 중 위험감수와 혁신성의 변수가 설문지의 타당성 검증결과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최종 연구모형에서는 요인값이 가장 높은 한 가지 문항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경력지향의 기술지향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문항을 기술지향 요인으로 최종분석에 포함하였다.

또한 주요 독립변인 중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성별, 나이, 학년, 창업교육 변수는 연속적 변수의 형태를 확보하고자 성별과 창업교육은 남자=1, 여자=0, 창업교육 경험자=1, 비경험자=0 으로 dummy화 했다. 그에 따른 타당도와 신뢰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in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question	factor loadings Values(1)	factor loadings Values(2)	Cronbach's	
personal characteristics	Achievement Need	I make plans and strive to accomplish them.	.683	.765	.677	
		I would like to challenge new fields hardly tried by others.	.495			
		When confronting with difficulties, I make an every effort to solve them.	.776	.743		
		I always pursue everything with passion.	.621	.639		
	Self-efficacy	I believe I can do whatever I want if I try hard.		.686	.565	.749
		I'm pretty confident of achieving almost everything that I plan.		.648	.659	
		I have self-confidence in successfully carrying out tasks given to me.		.756	.824	
		I am confident in completing tasks harder than what I am doing now.		.521	.713	
	positive risk taking	I tend to try new things even if there may be risks involved.	.064			.383
		I tend to cope with uncertain and/or obscure situations.	.246			
		To expand business, it is necessary to take risks sometimes.	.377			
		I can sacrifice my financial(monetary) targets for my business.		.720		
Innovativeness	I have creative and innovative thoughts.		.412		.678	
	I'm not afraid of taking on new challenges.		.472			
	I consistently try new thing and have creative ideas.		.649			
	I always try something new.		.385			
Individual Competency	I'm passionate and have leadership qualities.	.505		.613	.678	
	I have knowledge of how to start an enterprise and manage business.	.506		.634		
	I like to share information and make networking.	.806		.763		
	I have a remarkable ability to adapt myself to the change in my surroundings.	.606		.657		
Career Orientations	I prefer a workplace that provide stable employment, satisfactory retirement system, etc.		.745	.765	.756	
	I prefer a workplace that guarantees long-term employment.		.870	.875		
	I prefer a workplace that guarantees long-term employment or retirement at optimum age.		.777	.771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utonomy orientation	I prefer working freely by myself.	.783	.785	.780	
		I prefer a job free from sanctions imposed by an organization.	.847	.855		
		I prefer a job allowing much freedom and autonomy about preceeding works and spending time.	.778	.785		
	technology orientation	I'd rather stay in my field than get a high position in other fields.		.166		/
		I stick to remain in my professional field throughout all kinds of job-related activities.	.925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my career in a specific professional field of technology.		.340		
	management orientation	I prefer playing a role as a supervisor and/or a coordinator.	.640		.685	.703
		I think it is important to manage, supervise, control, and/or lead people from different levels.	.809		.815	
		I think it is important of take responsibility for a whole organization.	.724		.788	
businessorientation	I always seek ideas/ways to start my own business.		.778	.760	.754	
	I always dream of starting my own business and promote it		.836	.843		
	Business activities are the heart of my career.		.794	.804		
socio-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Entrepreneurial Mento	I have someone who I can ask for advice and/or help on starting business.	.429		.635	
		I have someone who I can talk to and ask for some advice on managing business.	.665	.856		
		I have friends, colleagues,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whom I can get some help and/or advice when facing difficulties.	.834	.856		
	personal networks	I am well acquaint with people who manage their business successfully.		.700	.810	.086
		If I start my own business, I have someone who would be considered as my role model.		.763	.794	
		There is someone who succeeding in starting business around me.		.835	.870	
	social recognition of Corporate & Entrepreneurial Policy	I am satisfied with the policies on starting business.	.600		.510	.669
		CEOs are recognized positively in our society.	.816		.840	
		I have a good impression on CEOs.	.757		.833	

4. 연구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2014년 현재 서울·경기·강원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456명의 창업에 대한 의지와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정하고자 하는 연구로써 개인적 수준 연구의 경험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자기기업 방식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먼저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하고자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남학생 259명(56.8%), 여학생 191명(41.9%)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19세~26세까지 다양한 학생들로 23세(20.0%)의 학생이 연구에 가장 많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의 학년 분포는 1학년 55명(12.1%),

<Table 4>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rate(%)
Gender	male	259	56.8
	female	191	41.9
	nonresponse	6	1.3
total		456	100.0
age	19	36	7.9
	20	86	18.9
	21	76	16.7
	22	54	11.8
	23	91	20.0
	24	63	13.8
	25	26	5.7
	26	10	2.2
nonresponse		14	3.1
total		456	100.0
grade	a first grader	55	12.1
	a second grader	114	25.0
	a third grader	199	43.6
	a fourth grader	88	19.3
	total		456
major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87	41.0
	Science and Engineering	150	32.9
	Business and Economics	72	15.8
	Arts and Athletics	20	4.4
	others	27	5.9
	total		456
Entrepreneurship Education	Y	85	18.6
	N	368	80.7
	nonresponse	3	.7
total		456	100.0

2학년 114명(25.0%), 3학년 199명(43.6%), 4학년 88명(19.3%)으로 3학년 학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학생들의 전공을 살펴본 결과 인문사회계열 187명(41.0%), 이공계열 150명(32.9%), 경상계열 72명(15.8%), 예체능 20명(4.4%)으로 인문사회계열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가장 많았고, 예체능 관련 학과 재학생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기술통계 결과

설문 참여 학생들이 인식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평균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타당성과 신뢰도를 확보한 응답은 각각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변수계산을 거쳤다. 그에 따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

variables	frequency	minimum value	maximum value	mean	SD
Achievement	456	1.67	5.00	3.3984	.65812
Need	456	1.67	5.00	3.3984	.65812
Self-efficacy	455	1.75	5.00	3.5170	.62998
positive risk taking	456	1.00	5.00	3.3487	.95568
Innovativeness	456	1.00	5.00	3.1667	.90824
Individual Competency	456	1.00	5.00	3.1563	.68889
safety orientation	455	1.33	5.00	3.7128	.73248
autonomy orientation	456	1.33	5.00	3.6360	.73132
technology orientation	456	1.33	5.00	3.5559	.74436
management orientation	456	1.00	5.00	3.3582	.73021
businessorientation	456	1.00	5.00	3.0994	.79704
Entrepreneurial Mento	456	1.00	5.00	3.2083	.84802
personal networks	456	1.00	5.00	3.0351	.85663
social recognition of Corporate & Entrepreneurial Polic	456	1.00	5.00	3.0680	.72729
entrepreneurial intention	456	1.00	5.00	2.9216	.86254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각각의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모든 변인이 평균 3.0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 혁신성, 개인역량,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관리지향, 사업지향, 창업멘토, 개인 네트워크, 기업의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나타났다. 그

러나 종속변인(창업의지)은 평균 2.916으로 보통 이하의 결과를 보여 줌으로써 대다수의 학생이 아직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4.3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이변량 분석)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지와 각 독립변인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창업교육과 같은 이산적 자료는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Dummy code하여 분석에 포함시켰

다. 그에 따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대한 각 독립변인과의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적 특성에서는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 혁신성, 개인역량이 강한 학생일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전의식과 모험심이 강한학생이 창업을 통해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얻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경력지향성에서는 자율지향, 관리지향, 사업지향

(Table 6)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bivariate analysis)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entrepreneurial intention	1																	
Achievement Need	.203*	1																
Self-efficacy	.259*	.468*	1															
positive risk taking	.219*	.319*	.349*	1														
Innovativeness	.293*	.244*	.300*	.211*	1													
Individual Competency	.417*	.343*	.406*	.157*	.441*	1												
safety orientation	-.118	.206*	.210*	.181*	-.017	.116*	1											
autonomy orientation	.246*	.228*	.277*	.228*	.122*	.152*	.311*	1										
technology orientation	-.081	.263*	.269*	.262*	.159*	.110*	.365*	.289*	1									
management orientation	.159*	.354*	.425*	.297*	.238*	.351*	.206*	.290*	.379*	1								
businessorientation	.615*	.295*	.289*	.272*	.352*	.485*	-.026	.203*	.050	.281*	1							
Entrepreneurial Mentoring	.255*	.179*	.321*	.131*	.162*	.325*	.129*	.316*	.264*	.302*	.284*	1						
personal networks	.428*	.123*	.289*	.191*	.206*	.361*	-.036	.154*	.063	.166*	.400*	.471*	1					
social recognition of Corporate & Entrepreneurial Policy	.388*	.177*	.276*	.133*	.228*	.248*	-.071	.176*	.060	.274*	.352*	.419*	.284*	1				
gender m=1, f=0	.208*	-.014	.107*	.082	.235*	.173*	-.237	-.001	-.179	-.067	.112*	.035	.400*	.471*	1			
age	.230*	-.031	.151*	.093	.266*	.202*	-.184	-.018	-.100	-.058	.146*	.124*	.352*	.419*	.450*	1		
grade	.157*	-.063	.064	-.024	.211*	.209*	-.080	-.019	-.086	-.039	.170*	.131*	.112*	.035	.207*	.038	1	
Entrepreneurship Education Y=1, N=0	.232*	.180*	.205*	.066	.149*	.255*	.018	.100*	-.016	.213*	.143*	.125*	.146*	.124*	.267*	.172*	.628*	1

** p<0.01, * p<0.05

이 창업의지에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안정지향의 경우 부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승진 및 전문분야의 잔류, 한정된 직장에서의 경력과 같이 소위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은 학생일 수록 창업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창업환경 요인은 창업멘토, 네트워크, 창업정책 변인이 창업의지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창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인간관계와 창업정책이 창업의지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창업의지에 대하여 남·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연령, 학년, 창업교육의 경험 유·무와 창업의지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성별을 제외한 모두의 요인들이 창업의지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대학생들의 기준에서 연령이 높고, 고학년일수록, 또한 창업교육의 경험이 있는 학생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창업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것이라는 가정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창업의지가 더 강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최근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더불어 여성 취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에 대한 기대감의 증가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4.4 다중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로써 그들이 가지는 개인적인 특성, 경력지향성, 창업환경요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각 주요요인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같은 측정도구로 사용된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독립변인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적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개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확인 하고자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변량 상관관계는 독립변인들에 대한 상호통제의 영향을 무시한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분석이므로

각각의 독립변인이 통제된 상황에서 종속변인과의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상대적 분석방법으로 다중회귀 분석을 선택하여 최종 연구모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variables	B	β	t
constant	.070		.112
Achievement Need	-.016	-.012	-.283
Self-efficacy	.009	.007	.151
positive risk taking	.063	.071	1.760
Innovativeness	.012	.013	.309
Individual Competency	.152	.122	2.608 *
safety orientation	-.126	-.108	-2.624 *
autonomy orientation	.199	.165	4.131 **
technology orientation	-.125	-.107	-2.527 *
management orientation	-.090	-.077	-1.760
businessorientation	.457	.423	9.601 **
Entrepreneurial Mento	-.020	-.020	-.449
network	.114	.113	2.534 *
Entrepreneurial Policy	.145	.123	2.888 **
gender m=1, f=0	.015	.017	.319
age	.025	.053	.751
grade	-.050	-.051	-.901
Entrepreneurship Education Y=1, N=0	.126	.115	3.067 *

R²=.496

*p<.05, **p<.01²⁾

연구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인의 종속변인에 대한 상대적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결과, 개인적 특성에서는 개인역량이 창업의지에 t값 2.608로 p<.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리더십과 창업정보, 정보공유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이 좋을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경력지향에서는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이 각각 t값 -2.624, 4.131, -2.527, 9.601로 p<.05, p<.01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관계가 있는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고, 한 가지 전문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일 수록

2) t값이 ± 1.96이상이면 p<.05, t값이 ±2.56이상이면 p<.01 범위 내에서 유의미하다.

창업의지가 줄어들고, 조직 내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일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기업의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이 t 값 2.534, 2.888로 $p < .05$,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 결과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창업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끝으로 통제변수의 하나로 살펴본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서는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 중에서 창업교육을 받았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업지향($\beta = .423$)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항상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창업과 관련된 생각을 하는 학생,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경력 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학생들이 창업의지가 강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사업지향을 강화할 수 있는 창업교육의 활성화가 창업의지를 향상시키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최근 가중되는 청년 취업난의 대안으로 대학생 창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 그들의 창업의지를 살펴보고,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은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성취욕구, 자기효능감, 위험감수, 혁신성, 개인역량,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관리지향, 사업지향, 창업멘토, 네트워크, 창업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구조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종속변수인 창업의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식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생들이 창업에 대한 본인의 역량이나 인식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반면에 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미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창업의지에 대한 각 독립변수들의 영향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결과에서는 개인적 특성에서 개인역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리더십과 창업정보, 정보공유성,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 능력이 좋을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력지향에서는 안전지향, 자율지향, 기술지향, 사업지향이 각각 유의미한 관계로 나타나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고, 한 가지 전문분야에서 꾸준한 노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창업의지가 감소하는 반면에 조직 내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일수록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환경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개인적 네트워크와 창업정책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가의 창업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일수록 창업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통제변수의 하나로 살펴본 창업교육 이수 여부에서는 창업교육을 받은 학생과 받지 않은 학생 중 창업교육을 받았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창업의지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강화하고 이를 실제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적 특성의 측면에서 위험감수성과 혁신성, 그리고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과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경력지향성의 측면에서는 창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안전지향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자율지향성과 위험감수성, 기술지향성, 사업지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회적 인식 및 창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창업의지를 갖는 대학생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창업에 대한 의지를 향상시키고, 더불어 다양한 창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대학생들이 창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주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벤처창업 전공과 같은 융합적 성격의 신규 전공을 활성화 하고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 강좌 등 다양한 창업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연구의 한계상 서울, 경기, 강원권에 국한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하여 보다 많은 표본으로 전국 단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내외의 보다 다양한 연구를 검토하여 창업의지 결정요인에 관한 척도를 다양화, 구체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다수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으나 국내 소수의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셋째,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총 5가지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활용하였으나 이 외에 개인의 소득이나 경제적 수준, 부모나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이나 지원 실태 등과 같이 보다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의 취업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체까지나 기업의 채용확대만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종의 대안인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 차원에서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의지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창업이 활성화될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며, 진정한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Sun-Yung Park, The reformation of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for the youth entrepreneurship, master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2013.
- [2] Joo-Seok Yoon & Joon-Hee Cho,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plan, Seoul : Doonam, 2008.
- [3] Choon-Yeop Park, Entrepreneurship, Seoul : Dongguk University Press, 2004.
- [4] Chun-Ae Nam, A Study of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Bizcool Education, Social Support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Environment on the LearningOutcom and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Ph.D. dissertation, Chonnam University, 2012.
- [5] Jung-Hee Hwang,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business performance for a startup companies : focusing on food service industry, Ph.D. dissertation, Gangwon University, 2013.
- [6] Sin-Mo Lee, Articles : A study on the start business of US, Japan & Korean Collegiates, International Area Review, Vol. 9, No. 3, pp. 186-207, 2005.
- [7] Ta-Sik Jeon, EASY To LEARN ENTERPRISE MANAGENT, Seoul : Doonam, 2010.
- [8] Kyoo-Sung Noh & Hyun-Jig Kang, A Study on the Present Conditions of Promotion Policy and Alternatives to Revitalize the Youth Start-u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9, pp. 79-87, 2012.
- [9] Min-Joo Chung, A Study on the Effects of Emotional Ability on Teamwork Capability and Business Creation Intention - Centering on Airline Flight Attendants -, Ph.D. dissertation, Kyunggi University, 2012.
- [10] Timmons, J. A. & Spinelli, S., New Venture Creation: Ente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McGRAW-Hill, 2006.
- [11] Michael, Peneder., "The Meaning of Entrepreneurship: A Modular Concept", Journal of Industry, Competition and Trade, Vol. 9, No. 2, pp. 77-99, 2009.
- [12] Cristina, Balaceanu. & Diana, Apostol., "DTHE CONCEPT OF ENTREPRENEURSHIP THROUGH

- HUMAN DEVELOPMENT PARADIGM”, Knowledge Horizons. Economics, Vol. 5, No. 1, pp. 61-66, 2013.
- [13] Teemu, Rantanen., “Students’ attitudes towards entrepreneurship in the Uusimaa region in Finland”, *Interdisciplinary Studies Journal*, Vol. 2, No. 4, pp. 48-65, 2013.
- [14] Krueger, N. F., “The cognitive infrastructure of opportunity recogni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 18 No. 3, pp. 5-23, 2003.
- [15] Brice, J., “The role of personality dimensions on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USASBE Small Business Advancement National Center, University of Central Arkansas, Conway, AR, 2004.
- [16] Li, W.,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testing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USASBE Small Business Advancement National Center, University of Central Arkansas, Conway, AR, 2006.
- [17] Hmieleski, K. and Corbett, C., “Proclivity for improvisation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 44 No. 1, pp. 45-63, 2006.
- [18] Kennedy, J., Drennan, J., Renfrow, P. and Watson, B., “Situation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Proceedings of the 16th Annual Conference of the Small Enterprise Association of Australia and New Zealand*, Ballarat, 2003.
- [19] Ferreira, João J., Raposo, Mário L., Ricardo Gouveia Rodrigues., Dinis, Anabela., Arminda do Paço., A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9 No. 3, pp. 424-440, 2012.
- [20] Dollinger, M. J., *Entrepreneurship: Strategies and Resources*, 3th ed., Prentice-Hall, 2002.
- [21] Jong-Woon Kim, An Analysis of Factors on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ed on the Motivation and Intended Startup Tim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9, No. 1, pp. 79-87, 2014.
- [22] Sung-Soon Kim, A Comparative Study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etween Korea and China,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10.
- [23] Eun-Joo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University Student :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Group Depending on Particip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master dissertation, Kongju University, 2012.
- [24] Jung-Hoon Seo,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college students’ individual, experienti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s, master dissertation, Hanbat University, 2013.
- [25] Eook-Yul Park, The influence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students and entrepreneurial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environmental intentions, master dissertation, Cgung-Ang University, 2012.
- [26] Kyung-Tae Yoo, A Study on Effects of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job Orientation through education factor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s, master dissertation, Cgung-Ang University, 2012.
- [27] Woo-Jin Lee, The Study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Reasons Affecting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8, No. 3, pp. 113-124, 2013.
- [28] Hye-Sun Kim, The research on the Entrepreneurship’s will according to college students’s MBTI personality type and Job’s typ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Vol. 5, No. 2, pp. 89-114, 2010.
- [29] Yung-Moon Kim,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usiness Management Review*, Vol. 47, No. 1, pp. 133-149, 2014.
- [30] Hong Kim, The Entrepreneurial Facto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Student, Vol. 7, No. 1, pp. 263-271, 2012.
- [31] Doo-Sik Jung, empirical study on business start-up education preferences and start-up

-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Conference, 2012.
- [32] Myung-Gil Choi & Eun-Joo Park, study on the effects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Vol. 24, No. 5, pp. 201-220, 2012.
- [33] Yung-Mi Oh,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on start-up intention, master dissertation, Hanbat University, 2013.
- [34] Woo-Jin Lee, Jin-Soo Kim & Yong-Tae Kim,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Quality and Satisfaction to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Business Review*, Vol. 28, No. 3, pp. 105-131, 2013.
- [35] Ki-Il Le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Chinese Determinant Factors of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master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2010.
- [36] Eun-Ju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University Student : The Comparison Study Between the Group Depending on Participa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master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12.
- [37] Yun-Ho Yoo,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Intentions to Participate in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Ph.D.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2009.
- [38] Sang-Hoon Oh & Kyu-Soo Ha, Effec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by Start-up Environment and Self-efficacy Mediated by Fear of Business Failur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8, pp. 143-157, 2013.
- [39] Bong-Ho Yoo,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f Self-leadership on Start-up Intention,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3, pp. 1382-1389, 2014.
- [40] Hoi-Yong Jung, study on individual characteristic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startup business candidate,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Vol. 15, No. 4, pp. 41-53, 2012.
- [41] Bang-Sup Yoon,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Korean Business Review*, Vol. 7, No. 2, pp. 89-110, 2004.
- [42] Yun-Ho & Dong-Woo Yang,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Conference*, 2008.
- [43] Min-Joo & Dae-Sung Chang, The Effects of the Emotional Management Abilities over Self and Others on the Service Business Creation Intention -Focused on Airline Flight Attendants-, *Journal of Air Transport Management*, Vol. 10, No. 1, pp. 71-79, 2012.
- [44] Myung-Sook Kim, Jae-Hyun Lee & Jong-Wook Ko,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and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3, pp. 233-241, 2013.
- [45] Kyu-Soo Ha & Ran-Sook Seo, The Demand Level for Business Start-up Education and Willingness of Starting a Business of College Students, *The Korean Society of Business Venturing Conference*, 2009.
- [46] Turker, Duygu & Senem Sonmez Selcuk.,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2009: 142-159.
- [47] Lo, Chung-Min; Wang, Jun-Re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under Environmental Uncertainty, *Journal of Accounting, Finance & Management Strategy*, 3(1), Jun 2007: 21-43.
- [48] Fayolle, A., "Evalua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behaviour performing or intention

increas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Small Business, Vol. 2 No. 1, 2005: 89-98.

- [49] Kickul, J., Wilson, F., Marlino, D. & Barbosa, S., "Are misalignments of perceptions and self-efficacy causing gender gaps in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our nation's teen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5 No. 2, 2008: 321-350.
- [50] Hamidi, D., Wennberg, K. & Berglund, H., "Creativity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5 No. 2, 2008: 304-320.
- [51] Raposo, M., Paço, A. & Ferreira, J., "Entrepreneur's profile: a taxonomy of attributes and motivation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Vol. 15 No. 2, 2008: 405-418.
- [52] Florin, J., Karri, R. & Rossiter, N., "Fostering entrepreneurial drive in business education: an attitudinal approach", Journal of Management Education, Vol. 31 No. 1, 2007: 17-42.
- [53] Bagraim, J. J. & Gird, A.,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s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 amongst final-year university students. S. Afr. J. Psychol., 38(4), 2008: 711-724.
- [54] G. K. Kang., C. R. Kim., linear regression analysis, Seoul : Kowoosa, 2013.

홍정표(Hong, Jeong Pyo)



- 1980년 2월 : 국민대학교 무역(학사)
- 2008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 1980년 2월 ~ 1989년 2월 : 현대중공업 재정부 근무
- 1989년 3월 ~ 2003년 10월 : 한라그룹 자금부 근무
- 2003년 11월 ~ 현재 : 원주 한라대학교 총무처장
- E-Mail : jphongno1@hanmail.net

양해술(Yang, Hae-Sool)



- 1975년 2월 : 홍익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 197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정보처리학과 졸업(석사)
- 1991년 3월 : 日本 오사카대학 정보공학과 SW공학 전공(공학박사)
- 2006년 2월 : Kazakhstan 유러시안 경제대학(명예경영학박사)
- 1975년 5월 ~ 1979년 6월 : 육군중앙경리단 전자계산실 시스템분석장교
- 1980년 3월 ~ 1995년 5월 : 강원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교수
- 1986년 12월 ~ 1987년 12월 : 日本 오사카대학 객원연구원
- 1995년 6월 ~ 2002년 12월 : 한국소프트웨어품질연구소 소장
- 2010년 3월 ~ 2012년 2월 : 호서대학교 창업대학원 원장
- 2012년 11월 : 대통령표창(SW산업발전유공) 수상
- 1999년 11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SW공학(특히, SW품질보증과 품질평가, 품질 감리 및 컨설팅, SI), SW프로젝트관리, 품질경영.
- E-Mail : hsyang@hoseo.edu